

Immanuel Kant
1724~1804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늘날 칸트철학에서 산 것과 죽은 것

Kant 300 in Korea: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the
Philosophy of Kant Today?

2024.10.17^{thu}~19^{sat}
(Oct. 17~19. 2024)

Jeong Hasang Hall 118,
Sogang University, Seoul

Hosted & Organized by

한국칸트학회
Koreanische Kant-Gesellschaft



North
American
Kant
Society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대의 말

한국칸트학회 회원 선생님, 각계 철학연구자 및 학생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칸트학회는 2024년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칸트 철학 전반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10월 17일(목)과 10월 18일(금) 양일간 서강대 정하상관 1층 118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베네딕토 크로체의 표현을 빌자면, 칸트 철학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심도있는 통찰과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국내외 전문가들은 칸트 연구 분야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학자들로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강연을 통하여 이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북미칸트학회(NAKS), 독일디지털칸트센터(Digitales Kant-Zentrum NRW), 서강대학교 철학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협력과 후원하에 마련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원님이 아니더라도 철학연구자와 학생을 포함하여 칸트철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무료로 학술대회에 오셔서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발표자와 세부 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국문 및 영문 초록 모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학회는 영어로 진행되오나 한국어 기계 통역이 동시에 자막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각 발표의 말미에 배당된 질의 응답시간에는 한국어 질문도 받아오니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혹 못다한 부분이 있다면 각 행사 일정 마지막에 계획된 와인/치즈포럼 시간에 자유롭게 원하시는 발표자와 교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한국칸트학회를 응원해 주시고 질정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리며,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노고산 자락에서 칸트철학의 진수를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한국칸트학회 회장

김한리 배상

* 학술대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료집은 PDF 형태로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만원을 납부한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종이책 자료집 수령 및 주차권 발부(자기 부담)가 가능합니다. 종이책 자료집과 주차권이 필요한 분은 아래 설문 링크에서 참가자 사전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https://forms.gle/nhJos1jKTn2goRdJ7>

A Letter of Invitation

Dear Friends and Colleagues,

Greetings!

We are delighted to invite you to join us for this meaningful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300th anniversary of Immanuel Kant's birth in 2024, the Korean Kant Society will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ant's philosophy at Sogang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17th and Friday 18th of October. The general purpose will be the renewed apprec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Kantian themes in the age of information revolution, in particular, addressing the question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the Philosophy of Kant Today?", to borrow Benedetto Croce's phrase. The speakers, specialists in the field invited to the conference on the occasion, will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in their respective area of expertise in Kant studies. This conference is organized with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North American Kant Society (NAKS), the Digitales Kant-Zentrum NRW,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Sogang University, and the Humanities Institut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 are grateful for their support.

All those interested in Kant's philosophy, including those studying and researching philosophy, are welcome to attend and listen, even if you are not a member of the Society (But, only those who are pre-registered by paying 10,000 WON will receive a paper copy of the proceedings and a parking permit(at their own expense). If you want to get them, please register using the survey link below. <https://forms.gle/nhJos1jKTn2goRdJ7>). For more information about each speaker and detailed topics, please see the attached documents (a collection of abstract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e conference will be held in English, but Korean translation will be available for simultaneous subtitles, and Korean questions will also be accepted during the Q&A period allocated at the end of each presentation, so please feel free to ask questions in Korean, and if you still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interact with your favorite speakers during the Wine/Cheese Forum scheduled at the end of each event.

Finally,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of the Korean Kant Society, and wish you all the best as you enjoy the inspiring and revolutionary philosophy of Kant at the foot of the beautiful Mt. Nogosan at the pinnacle of the Fall season.

October 2024

President of the Korean Kant Society

Halla Kim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늘날 칸트철학에서 산 것과 죽은 것

Kant 300 in Korea: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the Philosophy of Kant Today?

10.17. ^{thu}

Day 1 : Session 1~4

08:45~08:55 Meet-and-Greet Ice Breakers

Opening Ceremony

08:55~09:00 **Welcome Speeches :**

The Rev. Dr. Jong Hyeok Sim, SJ (President, Sogang University)

His Excellency Georg Schmidt (Ambassador to Korea from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Session 1 -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Aesthetics?

Moderator: Prof. Seung-Chong Lee(Yonsei University)

09:00~09:45 "What Is Living, What Is Dead (and what is Undead) in Kant's Aesthetics"
Prof. Rachel Zuckert (Northwestern University, USA)

09:45~10:30 "On the Conceptual Dependence of Artistic Beauty"
Dr. Larissa Berger(University of Siegen, Germany)

10:30~10:40 Break

- Session 2 -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Philosophy of Freedom?

Moderator: Prof. Seung-Chong Lee(Yonsei University)

10:40~11:25 "Kant and Corporate Agency"
Prof. Melissa Merrit(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11:25~12:10 "Kant's Molinism: A Preliminary Sketch"
Prof. Wolfgang Ertl(Keio University, Japan)

12:10~14:00 Lunch (K-Turtle Restaurant; By invitation Only)

- Session 3 -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Political Philosophy?

Moderator: Prof. Anthony C. Adler(Yonsei University)

14:00~14:45 "After Republics and Before Democracies: Kant on the Modern Polity"(pre-recorded)" Prof. Guenter Zoeller(University of Munich, Germany)

14:45~15:30 "Is Kant's Philosophy of History still alive? Or why we are no closer to Eternal Peace" Prof. Andree Hahmann, (Tsinghua University, China)

15:30~15:40 Break

- Session 4 -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Ethics?

Keynote Speech 1

Moderator: Prof. Halla Kim(Sogang University)

15:40~16:40 "Kant on Moral Meaning" Prof. Robert Pippin(University of Chicago, USA)

16:40~17:30 Special Convocation: Wine and Cheese Forum

18:00~ Dinner (Invitation only; hosted by Sogang University)

Immanuel Kant
1724~1804

**칸트의 미학에서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이 죽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죽지 않았는가?)**

**What Is Living, What Is Dead (and What is Undead) in Kant's
Aesthetics?**

Rachel Zuckert

(Northwestern University, U.S.A.)

철학의 많은 하위분야들에서와 같이, 칸트의 미학은 차후의 여러 논의에 영감과 논쟁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트의 미학에서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이 죽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가운데 나는 그의 취미판단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세 가지의 개념들 – 주관적 보편성, 순수성, 그리고 무관심성 – 에 주목할 것이다. 즉, 칸트는 유명하게 다음처럼 주장한다: 취미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관련 있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에 반응하여 다른 모든 주체들도 우리가 갖는 감정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순수성 개념은 방법론적이고, 무관심성 개념은 이 요청의 정당화에 관계되는 장치이다. 칸트는 “순수한” 취미판단에, 다시 말해, 경험적 개념들 내지 그러한 것들이 혼합되지 않은 취미판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그것에 기초해서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청이 입증될 취미판단에 아프리오리한 토대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취미판단이 무관심적 감정에 기초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혹은 내려질 때에) 칸트는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그것은 주체 고유의 특수한 열중 상태와 관심에 제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 개념들이 각각 순서대로 살아 있고, 죽었으며, “죽지 않은” (나는 이 세 번째 범주를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상당한 준비물을 그것의 하위 장르로 포함하는]들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감화를 받은 결과로 도입하게 됐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칸트의 주관적 보편성에 관련된 주장이 내게는 취미판단이 갖는다고 여겨지는 열망이 대단한 정당화 지위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미학적 실천에 관계되는 상호 주관적 가치에 관해서도 끊임없는 통찰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정당화 지위가 취미판단에 편협하기 그지없는 “순수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해명되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칸트의 제안은 많은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칸트가 말하는 순수성은 어디에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미학적 가치가 찾아져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 (기실, 경험적으로 특정한,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적으로 복잡한, 등등의 도대체 어느 곳에서 말인가?) 이론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칸트가 순수성에 매달리는 상황은, 미적 경험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작은 하위 범주를 우선시하도록 오도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안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취미판단에서 표현되고 그것에 의해 환기되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핵심적인 것이 현존함을 가정하도록 오도한다.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여 나는 다음처럼 주장할 것이다: 취미판단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주관적 보편성(또는 칸트적 용어로 “공통감의 이념”)을 열망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을 열망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무관심성 개념은 계속해서 현재의 논의를 맴도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

들이 논설하듯이, 이 개념 또한 미적 경험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답변을 가장 핵심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른 관심들에 관계 없는 “순수한” 것에 국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의 이론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즉 미학적 가치를 다른 본질적 가치의 형태들과 구별하기에 보다 만족스러운 개념을 발견하지 못했다.

As in many subfields of philosophy, Kant’s aesthetics has immensely influenced much subsequent discussion, as source of both inspiration and contention. In reflecting on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aesthetics, I focus on three interlocking concepts in his account of judgments of taste: subjective universality, purity, and disinterestedness. That is: Kant famously claims in making a judgment of taste, one makes a claim on all other subjects to share one’s feelings, in response to experiencing the relevant object. The concepts of purity and disinterestedness are, respectively, methodological and justificatory correlates to this claim: Kant focuses on “pure” judgments of taste, those free of empirical concepts (or “admixture”), in order to identify a priori grounds for such judgments, upon which the claim to subjective universality might be vindicated. And because (or when) a judgment of taste is made on the basis of *disinterested* feeling, Kant claims, it can be shareable by all others, for it is not restricted to the subject’s own, particular commitments and interests.

I will propose that these three concepts are respectively living, dead, and “undead” (a third category I introduce as a nod to the triumphs of Korean television, including its substantial zombie subgenre). That is: Kant’s claim concerning subjective universality appears to me a perduring insight not only about the aspirational justificatory status of such judgments, but also about the intersubjective value of engaging in aesthetic practices. But Kant’s suggestion that this status might be explained and vindicated by a focus on a narrowed-down “pure” basis for such judgments seems to me (as to many) both theoretically and normatively misleading. Normatively, Kant’s language of purity misleads concerning where the highest, most important aesthetic value is to be found (in fact, in the empirically specific, historically rich, socially complex, and so forth). Theoretically, Kant’s focus on purity misleads not only in prioritizing a vanishingly small subcategory of aesthetic experience, but also in suggesting that there is an already-existing core within each individual that is expressed in or called upon by actually valid judgments of taste. By contrast, I will argue, judgments of taste are better understood as aspiring to, and justified as aspiring to, a yet-to-be-attained subjective universality (or, in Kant’s terms, the *idea* of a common sense). Kant’s much-contested notion of disinterestedness, finally, is a notion that haunts current discussion: as many have argued, it too falsifies aesthetic experience in suggesting that one must narrow down one’s responses to a “pure” core, unrelated to one’s other life interests; as yet, however, we have found no more satisfying concept to perform its theoretical role, namely to differentiate aesthetic value from other forms of intrinsic value.

예술미의 개념적 의존에 대하여 On the Conceptual Dependence of Artistic Beauty

Larissa Berger
(University of Siegen, Germany)

칸트에서 자연미에 관한 (순수한) 판단들은 비개념적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미 이론에서 개념들과 의미는 좀 더 비중을 부여 받는다. 칸트에서 예술작품들은 미감적 이념들의 표현이다. 미감적 이념들은 이성적 이념들(예를 들어, 제우스 신)을 나타내는데, 전자는 후자를 미감적 속성(예를 들어, 그것의 발톱들로 번개를 붙들고 있는 독수리)을 통해 감성화되도록 한다. 몇몇 저자들은 예술미를 판정할 때 우리가 예술작품이 표현하는 이성적 이념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터Reiter & 가이거Geiger, 2018; 할퍼Halper, 2020)

나의 발표의 첫 부분에서, 나는, 예술미를 판정할 때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은 이성적 이념의 미규정된 개념(예를 들어, 제우스 신 개념)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그(녀)가 미감적 속성(예를 들어, “독수리” 개념)을 파악하게 되는 규정된 개념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직 이 개념적으로 파악된, 의미를 지니는, 미감적 속성 때문에 그 감상자는 기저에 놓인 이성적 이념과 관계되는 다수의 연합들과의 자유로운 유희에 들어설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예술미에 관한 판단들은 부수적인 미에 관한 판단들에 이른다. 칸트의 제안을 살핀다. 나는 대부분의 예술 형태에서 미감적 판단이 부수하는 개념은 이성의 이념이라는 해석에 반대할 것이다. (라이터Reiter & 가이거Geiger, 2018, 86). 이성적 이념들은 미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성적 대상이 어떠한지 하는 것인지를 규정할 수 없다. 나는 예술미에 대한 판단들은 미감적 속성의 규정된 개념(예를 들어, “독수리” 개념)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논설할 것이다. 우리는 예술작품의 완전성을 이 개념에 따라 판정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나는 예술미와 자연미의 아래 세 가지 차이점을 지적할 것이다.

(1) 자연미에 관한 판단들은 자유로운 미에 대한 판단들이거나 의존적인 미에 대한 판단들이다. 예술미에 관한 판단들은 항상 의존적인 미에 대한 판단들이다.

(2) 자연미에 관한 판단에서, 상상력은 형식들과 자유롭게 유희하는데 거기에서 이 유희는 주어진 감성적 자료에 의해 활성화된다. 예술미에 관한 판단에서, 인식능력들은 연합된 표상들과 자유롭게 유희하는데 거기에서 이 유희는 단지 주어진 감성적 자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개념적으로 파악된) 의미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3) 자연미에 관한 판단에서, 규정된 개념의 적용은 순전히 인식능력들이 자유롭게 유희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술미에 관한 판단에서, 규정된 개념의 적용은 애당초 관련되는 연합들과 자유롭게 유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For Kant (pure) judgments about natural beauty are non-conceptual. But in his theory of artistic beauty concepts and meaning are given more weight. For Kant, artworks are the expression of aesthetic ideas; the latter refer to rational ideas

(e.g., the god Jupiter) which they aim to make sensible by means of an aesthetic attribute (e.g., an eagle with a lightning in its claws). Some authors have claimed that in judging artistic beauty we recognize the rational ideas that the artwork expresses (Reiter/Geiger 2018; Halper 2020).

In the first part of my talk, I argue that, in judging artistic beauty, the beholder not only refers to the indeterminate concept of a rational idea (e.g., the concept of the god Jupiter), but also to a *determinate concept* by which she grasps the aesthetic attribute (e.g., the concept “eagle”). Only because of this conceptually grasped, *meaningful* aesthetic attribute the beholder can enter a free playing with a multitude of associa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 underlying rational idea.

In the second part, I investigate Kant’s suggestion that judgments about artistic beauty amount to judgments of adherent beauty. I will oppose a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which “in most forms of art the concept to which aesthetic judgments adhere is an idea of reason.” (Reiter/Geiger 2018, 86) Since rational ideas are *indeterminate*, they cannot determine what a sensible object is supposed to. I will argue that judgments of artistic beauty adhere to the determinate concept of the aesthetic attribute (e.g., to the concept “eagle”): we judge an artwork’s perfec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

In the third part, I will point out the following three differences between artistic and natural beauty:

i. Judgments about natural beauty can either be judgments of free beauty or judgments of dependent beauty; judgments about artistic beauty are always judgments of dependent beauty.

ii. In judgments about natural beauty, the imagination is playing freely with forms where this play is stimulated by the given sensible material. In judgments about artistic beauty the faculties are playing freely with associated representations where this play is not merely stimulated by the given sensible material, but by its (conceptually grasped) *meaning*.

iii. In judgments about natural beauty, the application of a determinate concept merely restricts the free playing of the faculties; in judgments about artistic beauty, the application of a determinate concept makes the free playing with *related associations* possible in the first place.

칸트와 공동의 행위자 Kant and Corporate Agency

Melissa Merritt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많은 칸트 해석가들은 칸트의 자유 개념이 인간의 나쁨(즉, 악)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성의 오묘한 한계 안의 종교』(1793) 제1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근본악은 개인 각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최초 행위로 인해 언제나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저작의 제3부 서두에서 칸트는 인간은 “상호적으로 서로의 도덕적 성향을 타락시키고 서로서로 악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6:94.5-6)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한 함께 타락시키는 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집단적으로 덕의 성취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에게 해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어서 칸트는 우리의 공동적 타락은 윤리적 공동체를 설립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94.29) 윤리적 공동체를 설립할 의무는 “그것 본연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는 개개인 각자가 다른 개인들에 대해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의 무리가 무리 자신에 대해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6:97.17-19) 이 의무는 그 무리인, 아마도 공동의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칸트는 인간은 단지 이 지극히 부담이 큰 의무를 근사치적으로 수행할 것을 희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전체 무리가 하나로 행위할 수 없다면, 보다 작은 무리들은 실질적으로 덕을 촉진하는 사회적 질서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근사치는 여전히 공동의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질 작업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 나의 목표는 이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심각할 정도로 연구가 미진한 후기 칸트의 윤리적 사유에 대해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몇몇 연구자들(예를 들어, 우드Allen Wood, 2000)은 칸트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간주한다. 다른 연구자들(예를 들어, 패스터낙Lawrence Pasternak, 2017)은 공동의 행위자를 들먹이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스쳐 지나면서 논점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며, 따라서 칸트의 시선을 사로잡는 주장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근거지어진 해석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다. 나는 공동의 행위자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 - 예를 들어, 콜린스 Stephanie Collins, 슈벤켄베셔Anne Schwenkenbecher, 페티트Philip Pettit - 에 기초하여 해석적 가능성의 영역을 살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적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한 칸트의 입장에 관한 진일보한 이해에 이를 것을 기도할 것이다.

Many of Kant's interpreters suppose that his conception of freedom rules out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human badness, or evil; for, as we are told in Part 1 of the 1793 *Religion within the Bounds of Reason Alone*, radical evil is a corruption that *each* individual invariably inflicts upon himself from the first act of free

choice. Yet at the start of Part 3 of that work, Kant claims that human beings “mutually corrupt each other’s moral disposition and make one another evil” (6:94.5-6). So it appears that *we* corrupt *ourselves* together, as well: we collectively create a social order inimical to anyone’s progress to virtue. Our common corruption, Kant then claims, is to be overco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thical commonwealth” (*ethisches gemeines Wesen*, 6:94.29). The duty to establish the ethical commonwealth is “of its own kind”: for it is not a duty that individuals have to other individuals, but rather one that the *species* has to itself (6:97.17-19). This duty is to be fulfilled by the species, presumably as a corporate agent. Kant recognises that human beings can only hope to approximate this extremely demanding duty: for if the entire species cannot act as one, smaller groups might still establish genuinely virtue-promoting social orders. Nevertheless, any suitable approximation would still be the work of a corporate agent.

My aim in this talk is to cast fresh light on this curious, but drastically understudied, aspect of Kant’s later ethical thought. Some (e.g. Allen Wood 2000) take Kant simply to be saying that a social problem requires a social solution.¹⁾ Others who acknowledge the appeal to corporate agency (e.g. Lawrence Pasternak 2017: 451n45) do so only in passing,²⁾ and fail to provide a philosophically grounded interpretation of Kant’s arresting claims. I draw on recent research on corporate agency and moral responsibility —from (e.g.) Stephanie Collins, Anne Schwenkenbecher, Philip Pettit — to navigate the scope of interpretive possibilities, with the aim of advancing our understanding of Kant’s position on our common corruption and what we owe ourselves as a result.

1) “Religion, Ethical Community and the Struggle against Evil”, *Faith and Philosophy* 17 (4): 498-511.

2) “Restoring Kant’s Conception of the Highest Good”,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55 (3): 435-68.

칸트의 몰리니즘: 예비적 스케치
Kant's Molinism: A Preliminary Sketch

Wolfgang Ertl
(Keio University, Japan)

『순수이성비판』이 출간되기 약 200여 년 전에 스콜라적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루이스 데 몰리나(Luis de Molina, 1535~1600)는 자유를 반사실적 조건문에 입각해서 검토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놀랄 만한 자유주의적 설명을 전개했다. 몰리나의 견해에 따르면, 유한한 자유로운 행위자가 전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에 관한 진리들이 있다. 더욱이 몰리나는 비록 신이 이 진리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것들에 대한 앎(지식)을 이른바 중간지를 통해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앎(지식)은 신이 세상을 생겨나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즉, 그의 창조적 활동성을 알린다. 이 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데 있다: 칸트가 근대 초기의 스콜라적 유산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음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몰리나적 통찰이 칸트의 자유 교설에서 보이는 핵심 요소들에 실제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이 요소들은 그의 철학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토대들에 더해, 그의 예지적 성격 개념, 그의 신학적으로 굴절되게 바뀐 법칙들에 기초해서 논의되는 자유의지와 결정주의의 양립 가능성 여부, 그의 은총과 근본악 교설 등을 포함할 것이다.

About 200 years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he Scholastic theologian and philosopher Luis de Molina developed a striking libertarian account of human free will in terms of counterfactuals of freedom. In Molina's opinion there are truths about how a finite free agent would act in any fully specified situation. Moreover, Molina thought that although God has no control over these truths, he has knowledge of them in the so-called *scientia media* which informs his creative activity of playing his part in bringing about a worl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while Kant's indebtedness to the early modern Scholastic legacy is perhaps not universally acknowledged, it is fair to say that Molinist ideas are indeed animating key elements of Kant's doctrine of freedom. These elements are: his conception of the intelligible character, his theologically inflected altered-laws compatibilism, his doctrines of grace and radical evil, together with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his philosophy of history.

공화정 이후 그리고 민주정 이전: 근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칸트의 입장 After Republics and Before Democracies: Kant on the Modern Polity

Günter Zöllner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 인간은 그것이 속한 무리의 다른 것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에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 하지만 어디에서 이 지도자를 취하게 되는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닌 인류로부터이다.”
(칸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제6명제)

본 강연은 근대의 정치 체제에 대해 권리에 기반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칸트의 정치철학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것의 주요한 열개를 제시한다. 초기 니체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칸트적 사유는, 칸트가 말하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서구적 양식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원과 조건과 한계”에 대해, “때에 맞지 않는 성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검토하자면, 본 강연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그것이 국가의 적법성의 토대를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관한 근대 초기 사유의 귀결로 본다. 또한 구조적으로 검토하자면, 본 강연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나란히 전개되던 자연법 전통과 사회계약 전통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강연은 칸트의 정치철학을, 칸트 이전 고대와 근대 초기 공화주의에 대한 그리고 칸트 이후 근대 후기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한 대안으로 기술한다. 본 강연의 초점은 칸트의 법철학 분야의 후기 저술들, 특히 두 부로 이루어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1795) 〈부록〉과 『도덕형이상학』(1797) 제1부(“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들”)에 맞추어질 것이다. 이에 더해, 놀랄 만한 해인 1784년 이래 출간됐던, 칸트의 정치철학 분야의 후기 저술들에 대한 때 이른 암시를 보이는, 특히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도덕형이상학 정초』, 〈자연법 파이어아벤트〉와 〈도덕철학 프롱고비우스 II〉도 고려에 넣을 것이다.

본 강연은 다섯 개의 절들로 이루어질 것이고, 각각의 절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는 칸트의 정치철학에서 보이는 핵심적 특질들, 즉 법률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대의주의 그리고 연방주의를 다루는 데 할애될 것이다. 제1절은 칸트의 법률주의를 제시하는데, 논의는 실천철학을 도덕철학으로 포괄적으로 개념화하는 가운데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에서, 그리고 관련되는 개념인 정치학을 응용된 법 교설로 여기는 것에서 성립한다. 제2 절은 칸트의 법률적-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제화하는데, 논의의 초점은 행복보다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자유에, 그리고 연관되는 구별인 애국주의적 통치와 가부장(온정)주의적 통치의 구별에 맞추어질 것이다.

제3절은 칸트의 주요한 구별인 국가의 헌법적 형태의 구별 - 군주제인지, 귀족제인지, 민주제인지 - 과 그것의 통치 방식 - 공화주의인지(입법권과 집행권이 다르게 할당되는 형태), 전제주의인지(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자에게 할당되는 형태) - 을 다룬다. 제4절은 사람

들이 지니는 이상적으로 주어지는 주권을 선출된 집행적 그리고 입법적 대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 칸트의 대의주의를 다룬다. 여기에서 초점은 칸트의 놀라우리만치 확신에 가득찬 계몽된 절대주의 체제에 대한 승인, 그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거리낌, 그리고 그의 격렬한 (그의 눈에 체계적으로 전제화되는 것으로 비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에 맞추어질 것이다. 마지막 제5절은 개별 국가들 간의 지속된 (영원한) 평화의 궁극적 설립을 (필연적으로 전제적) 세계 통치가 아니라 공화주의적으로 통치되는 소속 국가들로 주로 구성되는 “자유로운” 평화 리그에 연결시키는 칸트의 국제관계에서의 연방주의를 다룬다.

“[...] the human being is an animal which, if it lives among others of its species, requires a lord. [...] But where to take this lord from? Nowhere else but from the human species.”

Kant, *Idea to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Aim*, Sixth Proposition

The lecture presents the main outlines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as a right-based account of the modern polity that provides “untimely meditations,” to use the early Nietzsche’s phrase, on the “origin, conditions and limitations,” in Kant’s phrase, of today’s globally beleaguered Western-style “liberal democracy.”

Historically, the lecture situates Kant’s political philosophy at the conclusion of early modern thinking about the state in terms of the civil society that provides its legitimating basis. Systematically, the lecture locates Kant’s political philosophy at end of the twin tradition of natural right (*ius naturale*) and the social contract (*pactum sociale*). The lecture portrays Kant’s political philosophy as a principal alternative to pre-Kantian ancient as well as early modern republicanism and to post-Kantian late modern democratism. The focus of the lecture is on Kant’s late writings in legal philosophy, especially the two-part Appendix of *Toward Perpetual Peace* (1795) and the first part, entitled *Metaphysical First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Right*,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1797). In addition, the presentation draws on the earlier indications of Kant’s later political philosophy in several writings from the *annus mirabilis* 1784, in particular *Idea to a Universal History With a Cosmopolitan Aim*,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Foundation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Natural Right Feyerabend* and *Moral Philosophy Mrongovius II*.

The lecture is organized in five sections, devoted one each to a key feature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with lasting significance through today, viz., its legalism, its liberalism, its republicanism, its representationalism and its federalism. The first section presents Kant’s legalism, consisting in the strict separation of right (*ius*) and ethics (*ethica*) under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practical philosophy *qua* moral philosophy (*philosophia moralis*) and in the associated conception of politics as applied doctrine of right (*ausübende Rechtslehre*). The second section features Kant’s juridico-political liberalism with its focus on civil and political freedom (*libertas civilis*, *libertas politica*), rather than happiness (*eudaimonia*), and on the allied distinction between patriotic government (*imperium patrioticum*, *regimen*

civitatis et patriae) and paternalistic government (*imperium paternale, regimen paternale*).

The third section addresses Kant's principal distin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form of a state (*forma imperii*), which is either monarchical ("autocratic"), aristocratic or democratic, and its mode of government (*forma regiminis*), the latter being either "republicanism" (with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being differentially allocated) or "despotism" (with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lying in the same hands). The fourth section features Kant's representationalism, which delegates the ideally given sovereignty of the people to chosen executive and legislative representatives. The focus here is on Kant's surprisingly sanguine endorsement of enlightened absolutism, his reservations about constitutional monarchy and his vehement rejection of (in his eyes, systematically despotic) democracy. The fifth and final section addresses Kant's fed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ties the eventual establishment of lasting peace ("eternal peace") between individual states, not to a (necessarily despotic) world government, but to a "free" peace league (*foedus pacificum*) principally composed of republicanly governed member states.

**칸트의 역사철학은 여전히 살아 있는가, 또는 왜 우리는 영원한 평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Is Kant's Philosophy of History still alive? Or why we are no closer to
Eternal Peace**

Andree Hahmann
(Tschinghua University, China)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역사철학은 계몽주의 사유의 축소로, 그것의 의미가 순박하게 새겨진 역사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간주된 역사의 최종적 목표는 적어도 19세기에 있었던 역사과학의 수정 이후로, 그리고 이어서 20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가해졌던 계몽주의에 대한 근원적 비판 이후로, 이론적으로 논파된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실상을 살피면, 이 생각 또한 특히 20세기에 발발했던 참사들이 고려되는 경우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지하듯이, 인류의 문화적 발전은 도덕적 야만주의를 막을 수 없고, 법률관계에서 이룩되는 어떤 진보든 빠르게 퇴행하는 관계로, 지속적 진보라는 생각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비판은 물론 부분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헤겔에 의해 지지되는 것과 같은 후기 계몽주의적 접근법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언제나 면밀한 조사를 견뎌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게 그리고 조급하게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의 유산으로 치부되어 버림받은 칸트의 역사철학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칸트가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거나 염두에 둘 수 없었던, 그래서 중국에는 그의 접근법을 문제 있고 수정이 필요하게 만든, 몇몇 난점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 볼 것이다.

The philosophy of history is seen by many as the epitome of Enlightenment thought with its naïve notion of an end point of history. This final goal of history has been regarded as theoretically refuted at least since the revisions of historical science in the 19th century and then the fundamental critique of the Enlighte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view of the facts, however, this theory seems to have failed all too obviously, especially in the catastrophes of the 20th century. For it seems clear to everyone that the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 cannot prevent moral barbarism and that any progress in legal relations is subject to rapid regression, which, however, obscures the idea of continuous progress. This criticism is of course partly justified, but if we disregard post Enlightenment approaches such as those later advocated by Hegel, it does not always stand up to closer scrutiny. In this talk, I would like to give voice to Kant's philosophy of history, which I believe is wrongly and prematurely dismissed as a relic of Enlightenment optimism. However, I will also address some difficulties and important points that Kant did not yet have in mind at the time or was unable to take into account and which ultimately make his approach problematic and in need of revision.

칸트의 도덕적 의미에 대하여

Kant on Moral Meaning

Robert Pippin

(University of Chicago, U.S.A.)

칸트는 주로 도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도덕은 순수한 실천적 합리성의 문제이며 우리는 도덕 법칙, 즉 정언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책무지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칸트는 또한 우리가 저러한 이론적 측면에서 도덕적 삶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러 텍스트에서 우리가 도덕적 소명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경험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탐구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양심, 미덕, 성격의 형성, 도덕 교육,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한지, 도덕의 주장이 인간의 삶 전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도덕적 공동체의 가능성 등을 논한다. 이러한 주제들이 이 발표에서 논의되며, 본문에서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 『덕이론』, 『윤리학 강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리고 결의론 문제에 관한 에세이 등이 함께 다뤄질 것이다.

Kant is known mostly as a moral theorist. In that capacity, he argued that morality was a matter of pure practical rationality and that we are unconditionally obligated to a moral law, the categorical imperative. But Kant also noted that we do not experience our moral lives in those theoretical terms, and in several texts, he explored the various ways in which our moral vocation is ordinarily experienced, what it means to us, and how it comes to matter to us. In that context, he discusses such topics as conscience, virtue and the formation of character, moral education, whether human beings are radically evil, how the claims of morality fit into a human life as a whole, and the possibility of a moral community. These themes will comprise the topics of this seminar. The texts will include sections from hi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his *Doctrine of Virtue*, his *Lectures on Ethics,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and essays on the problems of casuistry.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늘날 칸트철학에서 산 것과 죽은 것

Kant 300 in Korea: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the Philosophy of Kant Today?

10.18. **fri**

Day 2 : Session 5~9

08:45~08:55 Meet-and-Greet

Opening Ceremony

08:55~09:00

Welcome Speeches :

Prof. Sun-Wook Kim(President,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Session 5-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Metaphysics?

Moderator: Prof. Sukjae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09:00~09:45

“Humility and Relationality After 300 Years”

Prof. Dai Heide(Simon Fraser University, Canada)

09:45~10:30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Metaphysics?”

Prof. Nick Stang(University of Toronto, Canada)

10:30~10:40

Break

-Session 6-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Theoretical Philosophy?

Moderator: Prof. Chaehyon Chong(Sogang University)

10:40~11:25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Intellectual Intuition in Kant through the Fichtean Lens” Prof. Hyeongjoo Kim(Chung-Ang University, Seoul)

-Session 7-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Philosophy of Feeling?

Moderator: Prof. Chaehyon Chong(Sogang University)

11:25~12:10

“Kant on Feeling” Prof. Alix Cohen(University of Notre Dame, USA)

12:10~14:00

Lunch (K-Turtle Restaurant: By invitation Only)

-Session 8-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Ethics?

Moderator: Prof. Dongwoo Kim(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4:00~14:45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Kant's ‘Fact of Reason’ ”

Prof. Sun Xiaoling(Nanchang University, China)

14:45~15:30

“Kant, Summum Bonum and Self-Cultivation”

Prof. Halla Kim(Sogang University, Korea)

15:30~15:40

Break

-Session 9-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Ethics?

Keynote Speech 2

Moderator: Prof. Halla Kim(Sogang University)

15:40~16:40

“The Primacy of the Practical (Or, Is Kant an Early Encroachment Theorist?)” Prof. Andrew Chignell(Princeton University, USA)

16:40~17:40

Special Convocation: Wine and Cheese Forum

18:00~

Dinner (Invitation only: hosted by Sogang University)

10.19. **sat**

Day 3 : Cultural Tour and Excursions

Immanuel Kant
1724~1804



칸트 탄생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피는 겸손함과 관계성

Humility and Relationality After 300 Years

Dai Heide

(Simon Fraser University, Canada)

연구자들은 몇몇 주목할 만한 다음과 같은 논설적 시도들을 보이고 있다. 칸트의 인식적 겸손함 테제는 관계들의 환원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에 대한 테제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그것은 감성의 순수한 형식으로 이해되는 공간의 관계적 구조에 관한 전제와 결합된다. 그러한 시도들은 대체로 인식적 겸손함 테제를 위한 것으로는 한낱 온전하지 않은 논증들로, 즉, 주요한 칸트적 전제가 칸트 고유의 공간 이론에 관련되는 세부내용들과 거의 독립해 있는 어떤 일반 형이상학적 주장에 기초해서 정당화되는 논증들로 여겨져서 거부됐다. 나는 여기에서 칸트가 그의 인식적 겸손함 테제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관계들의 환원 불가능성 주장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독해에 따르면, 칸트의 관계들의 환원 불가능성 주장은 일반 형이상학적 테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칸트가 선험적 감성학에서 전개하는 공간 이론에 기초해서 정당화되는 공간적 관계들의 환원 불가능성에 관한 특수 형이상학적 주장이다. 나의 해석은 칸트의 인식론을 라이프니츠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두고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는데, 칸트는 그것을 그가 선험적 감성학에서 인식적 겸손함 테제를 위해 논설할 때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cholars have made several noteworthy attempts to argue that Kant's epistemic humility thesis is justified by a thesis regarding reducibility or irreducibility of relations, combined with a premise about the relational structure of space, which is understood as a pure form of sensibility. Such attempts have been widely rejected as mere "short arguments" for humility: arguments that see a major Kantian thesis justified on the basis of some general metaphysical claim that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details of Kant's own theory of space. I argue here for a new interpretation of Kant's justification of his epistemic humility thesis, which does indeed depend upon an irreducibility claim. But on my reading, Kant's irreducibility claim is not a general metaphysical thesis, but rather a specific claim about the irreducibility of spatial relations, which is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space Kant develops in the *Transcendental Aesthetic*. My interpretation sees Kant's epistemology as developed against the backdrop of Leibniz's, which Kant seems to have squarely in mind in the *Aesthetic* as he argues for his epistemic humility thesis.

칸트의 형이상학에서 무엇이 살아 있고 무엇이 죽었는가? What is Living and What is Dead in Kant's Metaphysics?

Nick Stang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오늘날의 철학에서 칸트의 선형적 관념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다. 현시대에 인기 없는 저 교설은 “어떻게 형이상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답변의 부분을 이룬다. 나는 최근의 저작에서 오늘날의 분석철학은 이 물음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논설했다. 이 발표에서 나는 칸트의 물음을 이루는 한 측면, 즉 아프리오리하게 종합적인 인식의 문제를 검토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형이상학은 종합적이고 아프리오리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인식의 가능성을 보다 일반적 물음인 “어떻게 아프리오리하게 종합적인 인식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을 기도한다. 나는 이 물음이 현대적 용어로 적절하게 표현되면 1781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연과학은 이제 더 이상 몇몇의 칸트적 형이상학적 원리들(예를 들어, 인과적 결정론의 원리나 실체 보존의 원리 등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경험적 지식이 그것들 자체가 경험적으로 기초지어질 수 없는 비분석적 실질적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발표에서 나는 그러한 사례들 중의 하나, 즉, 형이상학과 자연과학 모두에서 대체로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최선 설명에의 추론(또는 간략히 말해, 귀추법)에 주목할 것이다. 나는 귀추법이 아프리오리한 추론의 양상을 띠는 것을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Biggs & Wilson, 2017 참조) 게다가 귀추법이 진리를 추적하는 방식은 분석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하물며 그것이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도 더더욱 분석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할 때 칸트적 물음은 다음과 같다: 왜 귀추법은 세계의 물리적 구조와 형이상학적 구조 모두에 관해 지식을 낳는가? 물음을 좀 더 직관적으로 와 닿게 나타내면, 왜 귀추법은 우리의 설명에서 성공을 보증하는 기준들(예를 들어, 단순성, 결실성 등과 같은)에 따라 진리 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에서 객관적으로 올바른 설명을 추적하게 하는가? 나는 현대의 몇몇 해설들을 검토하고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나는 『순수이성비판』 〈선형적 변증학〉에 딸려 있는 부록과 『판단력비판』에 나타나 있는 칸트 자신의 설명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선형적 관념론적 답변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생존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없겠지만, 그의 물음에 대한 현대적 유사체, 즉 “어떻게 귀추법을 통한 지식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에서부터 불거지는 거부되기 힘든 물음이 될 것이다. 칸트가 제시했던 실질적 답변들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살아 남을 수 없겠지만, 그가 품었던 물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매우 유효하다.

Kant's transcendental idealism finds few defenders in contemporary philosophy. That presently unpopular doctrine is part of Kant's answer to the question, how is metaphysics possible? I have argued in recent work that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has no satisfactory answer to this question. In this talk I will examine an aspect of Kant's question: the problem of synthetic a priori cognition. In the first *Critique* Kant argues that metaphysics is synthetic and a priori, and thus seeks to explain the possibility of metaphysical cognition by answering a more general question, how is synthetic a priori cognition possible? I will argue that this question, appropriately formulated in contemporary terms, is as relevant today as it was in 1781. While natural science may no longer require certain Kantian metaphysical principles (e.g., causal determinism, the conservation of substance, etc.), it is still true that empirical knowledge depends upon non-analytic substantive assumptions that cannot themselves be empirically grounded. In this talk I will focus on one such example: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or abduction, for short), which is widely regarded as foundational both to metaphysics and natural science. I begin by arguing that abduction is an a priori mode of inference (cf. Biggs & Wilson 2017). It is, moreover, far from analytic that abduction tracks the truth, much less that it provides knowledge. The Kantian question, in contemporary terms, is, why does abduction generate knowledge, both about the physical and metaphysical structure of the world? To put the question intuitively, why does abduction according to our canons of explanatory success (e.g., simplicity, fruitfulness) track not only the truth but the objectively correct explanation in metaphysics and natural science? I examine several contemporary accounts and argue that none of them are successful. I then briefly consider Kant's own account, in the Appendix to the Transcendental Dialectic and the third *Critique* and raise a problem for it. Thus, while Kant's transcendental idealist answer may no longer be a viable option, the contemporary analogue of his question (how is knowledge through abduction possible?) is a pressing one in the foundations of metaphysics and natural science. While Kant's positive answers may no longer be 'alive,' his questions are still very much with us today.

피히테적 렌즈를 통해 본 칸트의 지적 직관에 대한 적극적 해석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Intellectual Intuition in Kant through the Fichteian Lens

Hyeongjoo Kim
(Chung-Ang University, R.O.K.)

이 연구의 목적은 피히테의 렌즈를 통해 본 칸트의 지적 직관 개념을 다시 칸트의 지적 직관 개념에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네 단계를 설정하였다. 1. 본 논자가 설정한 “사고 활동의 분석적 함축”과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의 경험적 표상 의존성”이라는 칸트의 자아 개념과 관련한 두 독해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의 다른 독해법으로 수렴되는 바, 모순관계가 아니고 반대 관계에 놓여 있고, 따라서 양자는 각기 다른 독해법과 상관없이 그 자체 해석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2. 칸트가 지적 직관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이해되는 『순수 이성비판』의 유명한 구절인 B72와 B308을 분석하여서, 사실 이 구절 안에도 지적 직관의 이중적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3. 칸트의 지적 직관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피히테의 해석이 등장하는 『지식론』 〈제2서문〉의 5절과 6절을 분석하여 지적 직관의 존재에 대한 그의 적극적 해석을 다시금 칸트의 철학 안으로 투영한다. 4.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사고 활동의 분석적 함축”과 피히테의 지적 직관의 해석이 ‘자기 활동성으로 규정되는 범주로 규정될 수 없는 자기 규정이 사실은 지적 직관이다’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Kant's concept of intellectual intuition by considering Fichte's perspective on intellectual intuition. To achieve this goal, four steps are established: 1. I will present the two interpretations that were originally derived from my previous research: [the analytic implication of thinking activity] and [the dependence of the proposition ‘I think’ on empirical representations]. And then I will demonstrate that these two interpretations can be merged into a single interpretation; thus, they stand in a contrary relationship to each other rather than a contradictory one, allowing each interpretation to be regarded as having Interpretative validity independently of the other. 2. Next, I will show that the duality of intellectual intuition can be found from the famous passages, specifically B72 and B308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where Kant is said to reject intellectual intuition. 3. Through the analysis of §5 and 6 of Fichte's “the second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Knowledge*,” where the comments on Kant's concept appear in a comprehensive and focused manner, I aim to reintegrate the intellectual intuition positively assessed by Fichte into Kantian philosophy. 4. Ultimately, I will argue for harmonizing the interpretation “the analytic implication of thinking activity” with Fichte's explanation of intellectual intuition in the sense that both stand on a common foundation: this foundation is, that the categorical indeterminate self-determination of the I,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self-activity, is indeed an immediate fact.

칸트의 감정(느낌)에 대하여

Kant on Feeling

Alix Cohen

(University of Edinburgh, U.K./University of Notre Dame, U.S.A.)

감정(emotions)에 관한 오늘날의 논쟁에서 칸트는 종종 인격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탁월한 냉혈한 철학자로 묘사되곤 한다. 인격적으로, 그는 단조롭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무정(無情)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회화화되었다. 철학적으로, 그는 윤리와 인식 영역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도 정에 대한 지독한 반대자로 그려진다. 이 발표에서 나는 이러한 묘사가 아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감정에 대한 칸트의 설명이, 감정을 다른, 아마도 더 근본적인 심리적 상태의 측면에서 규정하는 최근의 경향에 맞서, 감정에 대한 현재의 논쟁에서 독창적 기여를 할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감정에 대한 동화적(同化的)적 모델과 대조적으로, 나는 칸트가 감정을 무엇보다 먼저 ‘느낌(feeling)’으로 정의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다. 이처럼 칸트의 그림에 따르면, 감정은 의욕적 또는 인지적 상태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인지적이지도 의욕적이지도 않으며, 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감정에 대한 현대의 ‘느낌 이론들(feeling theories)’과 중요한 측면에서 유사한 철학적 입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론가들은 감정에는 환원할 수 없는 정동적 요소가 있으며, 이 요소는 독특한 현상학뿐만 아니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In contemporary debates on the emotions, Kant is often described as the cold-blooded philosopher par excellence, both personally and philosophically. Personally, he is caricatured as an emotionless character who led a monotonous and regimented life. Philosophically, he is portrayed as a virulent opponent of the emotions, not only in ethics and cognition but also in life more generally. In my talk, I will argue that not only is this portrayal unfounded, Kant's account of feeling can potentially make an original contribution to current debates on the emotions by going against contemporary trends that define emotions in terms of other, putatively more fundamental, mental states. By contrast with assimilative models of the emotions, I will show that Kant puts forward a model that defines them first and foremost as feelings. Thus on the Kantian picture, while emotions may occur together with conative or cognitive states, they are neither cognitive nor conative, and taking this claim seriously points to a philosophical position that, perhaps surprisingly, is similar in important respects to contemporary 'feeling theories' of emotions. For just like Kant, these contemporary theorists put forward an account according to which there is an irreducible affective component of the emotions, a component that has a distinctive phenomenology as well as a unique function.

칸트의 이성의 사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Kant's 'Fact of Reason'

Sun Xiaoling

(Nanchang University, China)

이 글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칸트의 이성의 사실을 해명하는 것을 기도한다. 이성의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사실을 단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칸트 학자들은 그것이 칸트 철학의 비판적 기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실천이성비판』에서 나타나는 연역을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그것은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도덕법칙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이중성 문제에도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서 나는 제1절 논의를 통해 백(Lewis White Beck)이 언급된 이중성 문제를 이성을 위한 사실과 이성에 대한 사실을 서로 구분함으로써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을 위한 사실은 곧 그것을 통해 도덕법칙이 입법적이게 되는 순수한 이성의 자체 활동성으로 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예지적 활동성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음을 고려하는 가운데 나는 제2절에서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제시하는 교수대로 끌려갈 위험에 처한 사람의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수대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 도덕법칙과 적극적 자유 개념의 결합을 드러내는 도덕법칙으로부터의 절대적 제약 경험을 예화하는 것이다. 이 글의 제3절은 나의 현상학적 해석에 대해 제기될 법한 비판들에 대한 답변을 보이는 데 대체로 할애될 것이고, 이 해석적 접근에 대해 한층 더한 명료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나는 두 종류의 경험, 즉, 경험적 경험과 현상학적 경험을 서로 구별할 것이다. 교수대 사람의 경우는 후자의 [현상학적] 종류의 경험을 보이는 것임이 밝혀질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이성의 자체 활동성으로 간주되는 이성의 사실에 경험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현상학적 분석에 토대해서, 나는 칸트의 이성의 사실 교설에 대해 가해지는 다양한 비판들에 응답하고 칸트의 도덕적 정언명령 연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할 것이다. 나는 또한 이 현상학적 접근을 코스가드적 구성적 접근과 비교하고 대조해 볼 것이다.

The essay ventures to explicate Kant's "fact of reason"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sofar as it affirms an unquestionably given fact, many Kant scholars argue that it is at odds with the critical spirit of Kant's philosophy. It is also suspected of rendering the deduction of the second *Critique* "begging the question". There is also a question of the duality of the meaning of the fact the reason, since it refers both to the consciousness of the law and the moral law itself. So, in the first section we will investigate Beck's solution of this problem of the duality through a distinction between the fact for reason and the fact of reason, and

further argues that the fact of reason should be understood primarily as pure reason's self-activity, through which the moral law gets legislated. Insofar as this noumenal activity is not directly accessible to us, we will in the second section, make a careful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Gallows Man Kant offers in the second *Critique*. From a phenomenological point of view, the Gallows Man case exemplifies an experience of the absolute constraint of the moral law, which in itself connects the moral law and a positive concept of freedom. The third section of this essay mainly responds to the possible challenge to our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and further clarifies this interpretive approach. In this section, we distinguish two kinds of experience, i.e., the empirical and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The Gallows Man case manifests the latter kind of experience, which opens up an experiential access to the fact of reason as pure reason's self-activity. On the basis of this phenomenological analysis, we will respond to various criticism of Kant's doctrine of the fact of reason and shed a new light on Kant's deduction of the moral categorical imperatives. We will also compare and contrast this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Korsgaardian constructive approach.

칸트, 최고선, 그리고 자기 수양
Kant, Summum Bonum and Self-Cultivation

Halla Kim
(Sogang University, R.O.K.)

칸트 철학의 백미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미몽을 타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이념이고 그에 따른 형이상학의 개조이다. 이는 - 신채호의 말을 변용하자면 - 철학 역사상 이천오백년 이래 제일 대사건에 닮아난 『순수 이성비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칸트철학이 여기서 정점을 이룬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공헌이겠으나 결코 세계시민적 의의나 인간정신사의 최고봉을 이룰 수 있는 부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칸트철학은 이론철학에서 출현하였으나 결코 이 지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잘 알려진대로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이론적 질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이어, 저 모든 질문이 수렴되는 다음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간학>>이 설파하는 대로, 우리는 “세계를 아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에서 실천철학에서 정위된 도덕적 행위와 삶의 궁극적인 결과목표로서 제시된 최고선을 실현하는 데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철학에서 최고선은 "도덕성과 그에 부합되는 행복이 비례적으로 결합된 체계"로서 하나의 실천적 이념이다. 우리 이성은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고선을 실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도덕적 세계 안에서 도덕적 행위자들의 준칙은 최고 존재자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 (KdrV, A810/B838). 그러나 최고선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은 결코 절대자 혹은 계모와도 같은 세계의 아량에 의존해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일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신과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를 이룬다. 도덕성과 덕이 비록 완전선은 아니지만 이제 최상선으로서 최고선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칸트는 최고선에 이르는 도상에서 "신성성"(Heiligkeit)을 도덕적 이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의 원리 즉 도덕적 소질과 동시에 악의 원리 또는 근본악이 존재한다(ReI, A3). 인간의 심성이 도덕적 본성의 근간의 이루는 인격성뿐 아니라 동물성을 포함하고 있고 더더구나 타고난 근본악의 성벽은 신성성 성취를 위한 "도덕적 진보"나 "보다 더 높은 단계를 향한 무한한 전진"이라는 과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신체를 가지고 제한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러한 임무는 어떻게 수행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덕론의 둘째 부분인 윤리학적 방법론에서 윤리학적 수양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쾌적한 인생의 안녕을 보장하고 활기찬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켜줌으로써 본능적 욕구등의 덕의 장애물로부터 도덕을 보호할 목적으로 덕을 강화시키고 활기차게 훈련시키는 방법이며 인간의 도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섭생법(Diätetik)이다. 그러나 칸트의 수양론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덕을 훈련하는 규칙들의 제시에 국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 검토하고 동아시아의 함양공부의 전통에서 얻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칸트의

최고선 체계의 일환으로 자기 수양론을 전개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지만 삶에서의 실천과 생활에 관계하는 세계지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가 준엄히 경고한 형이상학적 가상의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고서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묘이다.

This is a sketch of the Kantian theory of self-cultivation that has been designed to promote the Kantian enterprise of Summum Bonum with inspirations from the East Asian tradition of self-cultivation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ormer.

The gist of Kant's philosophy, one may say, is to present a powerfu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etaphysics that was fraught with transcendental illusions. This is the very idea of the Copernican Revolution and the resulting transformation of metaphysics. This revolution is most drastically brought to relief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which is itself an “event” in the long history of philosophy. However, Kant's philosophy does not remain in the theoretical enterprise and goes on to offer penetrating insights about the way of life in the active world. Kantian philosophy may start from a firm ground in theoretical philosophy, but it never stops there and stretches beyond. As is well known, Kant not only raises the theoretical question ‘What can I know?’, but also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What ought I to do?’ and ‘What may I hope?’ All of these questions then converge in the question, ‘What is a human being?’ As his *«Anthropology»* amply indicates, we should not stay content with “knowing the world” but should aim at “embracing the world.” In an important sense, this is most emphatically presented in the Kantian idea of summum bonum as the ultimate goal of moral behavior and human life as systematically offered in his practical well as religious philosophy.

Within the Kantian system, summum bonum is a practical idea as “a system in which morality and corresponding happiness are proportionally combined.” Our reason, despite its finitude, always demands that we realize the highest good. When fully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rules of moral agents in their moral life coincide with the will of the supreme being (KdV, A810/B838). However, for the sake of realizing the summum bonum, humans can never remain passive beings who must rely on the absolute being or the generosity of the step-motherly nature. At this point, humans must form a dynam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God. Although morality and virtue are not a complete good, they now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summum bonum as the highest good, and therefore Kant presents “holiness” (Heiligkeit) as a moral ideal on the road to the summum bonum. However, according to him, in our nature, there exists a good principle, or moral predis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a principle of evil, or radical evil (Rel, A3). The human mind contains not only personality, which forms the basis of our moral nature, but also animal nature. Moreover, the innate propensity to evil poses a great challenge to the effectuation of “moral progress” or “infinite progress” for the achievement of holiness. How can this task then be accomplished by humans, embodied and limited beings?

In an important section of the doctrine of virtue in the *Metaphysics of Morals*, Kant attempts to provide a method of ethical cultivation. This purports to present none other than the method of strengthening and vigorously training virtu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 from obstacles to virtue, such as instinctive desires, by ensuring a well-being for life and maintaining a lively state of mind, and is a kind of regimen necessary to maintain human moral health (*Diätetik*). Even though Kant's theory of cultivation is significant in this regard, it is not dealt with in depth and thus is not systematic; it is also limited to a presentation of abstract rules for disciplines. This paper raises and examines these problems and develops a theory of self-cultivation as part of a Kantian enterprise of *summum bonum* with a healthy dose of injections from the East Asian tradition of self-cultivation. Without violating Kant's strictures on the limits of knowledge, this attempt hopes to rehabilitate the wisdom about how we can go about in the world by way of moral practice and gaining insights about the best life to live within the limits of embodied existence on the part of human beings.

실천적인 것의 우위성 (또는 칸트는 잠식 이론의 선구자였는가)?
The Primacy of the Practical (is Kant an early encroachment theorist?)

Andrew Chignell
(Princeton University, U.S.A.)

이 발표에서 나는, 존재하는 것에 관련되는 이론적 활동은 때때로 어떤 경우여야 내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련되는 실천적 고려에 전적으로 기초할 수 있다는 칸트적 사유를 검토한다. 나는 적어도 폭넓게 칸트적이라고 말해지는 “도덕 논증”(moral argument)의 부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이러한 사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서 나는 칸트적 그림을 오늘날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몇몇 “잠식”(encroachment) 이론들(즉, 실천적 요소들이 우리가 어떤 이론적 명제들에 대한 지식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에 대해 영향을 끼침을 주장하는 이론들)과 비교해 볼 것이다.

In this talk I consider the Kantian idea that theoretical commitments regarding what exists can at times be wholly based in pract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what ought to be the case. I argue that at least one variety of a broadly Kantian “moral argument” has some real attractions. Along the way I compare the Kantian picture to some “encroachment” theories in contemporary philosophy (i.e. theories according to which practical stakes affect whether or not we have knowledge of certain theoretical propositions).